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오노'의 '바퀴오라오라' 발명

대부분의 발명은 원리를 알고나면 다음 단계는 일사천리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때때로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바퀴벌레 퇴치기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바퀴오라오라'라는 발명품이 이를 잘 입증한다.

발명가는 아이디어 박사로 소문난 일본사람인 '오노. 오노는 정년이 되어 퇴직하기 전까지 '리코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오노는 리코에 근무하는 동안 매달 한건씩의 아이디어를 제안, 많은 상과 상금을 받기도 했다.

오노의 왕성한 발명활동은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되어 매일같이 발명에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노는 바퀴벌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아내를 보았다. 그 순간 오노의 머리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종이에 끈끈이를 발라 파리가 붙게해서 파리를 잡는 것처럼, 끈끈이를 이용하면 바퀴벌레도 잡을 수 있을 거야.'

어렸을 때 본 파리잡는 끈끈이 종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날부터 오노는 바퀴벌레 퇴치기구의 연구를 시작했다. 리코에 근무 하면서 길러진 창의력과 관찰력이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오노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은 왁팬(Wap-pen). 그 당시 일본의 어린이들 사이에는 동물이나 아톰 등의 만화 그림이 그려진 동그란 왁팬을 여러장씩 옷에 붙이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다.

오노는 왁팬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바퀴벌레 퇴치기구를 만들었다. 그날 밤 당장 시험에 착수한 결과 바퀴벌레는 모조리 퇴치기구속의 접착제에 붙어 죽어가고 있었다.

당일로 특허출원을 마치고, 손수 생산을 시작했다. 혼자서 만드는 적은 양이었지만 재미는 여간 짝짤한게 아니었다.

1년반 후, 특허로 등록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모 제약회사가 찾아왔다.

로열티를 줄테니 특허를 양도해 달라는 것. 즉석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량생산이 시작되었다.

이름하여 '바퀴오라오라'. 그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판매개시 3개월만에 27억엔의 매출고를 올리며 일본 전역을 강타한데 이어, 1년만에 세계시장을 독점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억만장자가 된 오노의 이야기는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 발명계의 교훈으로 기록되고 있다.

'퀸트'의 '미니 스커트' 발명

거리에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미니 스커트.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젊은 여성, 아니 남성들이 더 좋아하는 미니 스커트는 발명가에게 훈장까지 안겨준 세계적인 발명품.

발명가는 영국의 의상 디자이너였던 '메리 퀸트' 여사.

1960년 여름. 퀸트는 벌써 몇년째 새로운 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연구에 골몰하고 있었다.

“

대부분의 발명은 원리를 알고나면 다음 단계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때때로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은 어떤 스타일
일까?’

벌써 수천장의 그림을 그렸고, 그중에서 몇
가지를 시장에 선보여 보았으나 그 반응은 별
무 신통.

그러나 쿤트의 연구는 그럴수록 열을 더해갔
다. 일종의 오기까지 발동한 것.

‘나도 여자인데, 나라면 어떤 옷이 가장 좋을
까?’

오랜 연구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쿤트
는 연구를 원점으로 돌려 자신의 생각부터 정
리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미는 얼굴, 다음은 윤곽이 뚜렷한 가
슴과 엉덩이, 그리고 두 다리의 각선미...’

쿤트는 여성의 신체부위와 함께, 그 여성들
을 사랑하는 남성의 심리까지도 분석했다.

‘그렇다. 남자는 물론 이 옷을 입는 여성들의
마음까지도 오싹하게 짚고, 거기에 엉덩이를
부각시키면 어떨까?’

그것은 모험이었다. 과연 이처럼 혁신적인
짧은 스커트를 입을 수 있는 뱃장 좋은 여자가
얼마나 될까.

당시까지만해도 여자들이 무릎 위 장단지를
노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으
니.

그러나 쿤트의 생각은 달랐다.

‘여성의 미는 육체에 있는데 종아리와 장단
지 말고 어디를 자랑한단 말인가?’

쿤트는 과감하게 미니 스커트를 선보였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항의
가 빗발쳤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폭발적인 인

기였다.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가 겨우 중심부를 가린
정도의 미니 스커트는 단숨에 영국 전역을 강
타했다.

이어 5대양을 건너 6대주를 강타, 전세계가
미니 스커트 열풍에 휘말려 들어갔다.

1966년에는 수출을 통한 순수입만도 4백만
파운드. 신사의 나라에서 해괴한 옷이 바람을
일으켰다해서 못마땅해 하던 영국 정부까지도
놀라운 인기와 수출고를 인정,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쿤트는 일약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부상, 황
금방석에 앉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가수 윤복희 씨가 김포공항에서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선보인 미니 스커트가 바로
쿤트의 필생의 걸작이다.

〈王然中 記〉

신 간 안 내

발명박사 1·2

규격 : 국판 240면

가격 : 각권 3,000원

판매 : 본회자료판매센터

(전화)/(02)551-5571)